## 무념무상의 세계 직관해야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무념무상(無念無想). 새해 희망의 세계로 남산은 푸르고 한강은 유유히 흐른다.

불교의 사상은 중간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집착을 버리고 공평하게 현실을 철저히 보는 입장을 형용하는 것으로 양극단을 부정하고 지양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좌정관천(坐井觀天)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해는 무념무상의 세계를 직관해야 합니다.

## 소통으로 하나되는 한 해 되길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



지난 한 해 우리는 혼돈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여 한숨을 쉬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작은 촛불들이 모여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 낸 한 해였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서로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소통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올해는 가족부터, 직장,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실천부터 해나가도록 합시다.

## '대학다운 대학'으로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조계종 종립 동국대는 2017년을 '대학다운 대학'으로 내실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수립해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 연구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위해,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연구역량이 우수한 교수진을 계속 영입하겠습니다.

## 자비의 씨를 뿌리는 해로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대승정 목탁 스님**



저무는 해를 멀리하고 정유년 새해 작은 소망을 피력해 봅니다. 고통의 사바세계에 너다 나다 구별 없이 모든 중생 하나같이 초발심으로 돌아가 독선과 과대망상에서 벗어날 정신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할 새해입니다. 행걸(行乞)의 언덕은 높았고 행화(行化)의 지평은 광활하고 험난했지만 부처님의 45년 동안을 중생 속으로 나아가는 끝없는 대비행을 닮아 자비의 씨를 뿌리는 자랑스런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열뇌를 식히니 시원하도다

**(사)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중생들이여! 세상살이 고달프다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나만이 행복하다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이 도리를 왜 모르는가. 알면서도 그에 들지 못함은 끄달림속에 울고 웃기 때문이도다. 이 심법(心法)을 모두 속히 깨우치고 나면 참된 법 제법실상(諸法實相)이 보이나니 이를 봄은 부처님의 경지에 다달음이요. 불지지견 개시오입(佛之知見 開示悟入)코져 함이 일대사인연임을 알게 됨이니라.

## 정진으로 새해를 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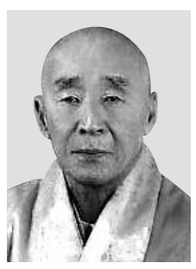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도선 스님**



사람들은 불변하는 자기 마음을 항상 지니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은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물처럼 쉼 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물같이 흐르는 마음을 따라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쉼 없이 변하는 번뇌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닌 것을 알고, 중생들이 지닌 영원한 본성 즉 불성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정유년 선정과 물러서지 않는 정진으로 새해를 열어 갑시다.

## 삶의 현장은 살아있는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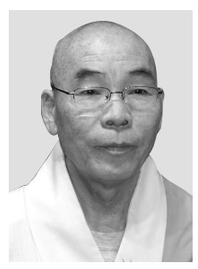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정광 스님**



지금 우리 삶의 현장은 그대로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생활현장을 떠난 진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들의 제일 큰 위험은 결정적인 순간에 스스로 재앙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열심히 몸으로 이루어 놓고 한마디 잘못된 말로 모든 것을 망쳐 버리고 맙니다. 정유년 겸손과 예절을 미덕으로 하여 정진한다면 인성은 절로 단정하고 엄숙해 질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 선악 초월 가르침 따르길

**(사)대한불교원융종 종정 성관 스님**



태양은 분별없이 모든 곳을 비추어 줍니다.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게 나누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악을 초월하라는 큰 가르침을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주장하는 선악은 다분히 감정위주의 분별심이 작용하는 데서 올 뿐입니다. 즉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선악은 대부분 아전인수 격인 독선과 자신만의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태양과 같이 분별하지 않는 자비심을 널리 펼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갑시다.

## 마음 속에 모든 자유가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어떤 날은 비가 오고 어떤 날은 맑고 화창하며, 어떠한 날은 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칩니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하듯 우리 사바세계의 삶도 때로는 힘들기도, 평탄하기도, 좋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니, 마음 하나를 제대로 잘 다스리면 여기에 모든 자유가 있고, 모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거울이 자기 얼굴을 잘 볼 수 있게 하듯이 번뇌에 찌들은 마음을 깨끗이 정유년에 닦아야 하겠습니다.

## 곳곳이 불국토요 부처님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남정 스님**



一本文是 眞性佛이요
眞佛說法 利衆生되리라
在在處處가 佛刹佛身이요
森羅萬象이 淸淨法身이로다

여기에 근본이 문장이 있으니 진실로 부처님 성품이요. 부처님께서 진실한 법 설하시니 사바의 모든 중생이 이익되리라.

곳곳이 불국토요, 부처님이시니. 삼라만상이 맑고 깨끗한 법신이로다.

## 대중 다함께 행복 누리자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스님**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태양처럼 정유년 새 해엔 우리 모두 긴 잠에서 깨어나 참 진리에 눈을 뜨고 자각해탈을 이루는 한 해가 됩시다.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은 자기 자신부터 바로 서고 나서 남을 제도해야 합니다.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정신으로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여 모든 대중이 다 함께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요, 실천인 것입니다.

## 실천하는 참모습으로 돌아가자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진리란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진실한 것이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리 진실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제각기 지니고 있는 알음알이로 차별하는 것이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제멋대로 개념지어 그 개념에 사로잡혀 진실한 자기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다. 우리 승가와 불자들은 자정기의(自淨其意)를 실천하는 참모습으로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 중생 삶 벗어나 자유를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정유년 새해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할 것을 기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정유년 오시는 길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일들만 가지고 오시옵소서. 갈등으로 가득한 이 세계를 부처님의 자비로 어루만져 주시고 가르침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미움도 고움도 털어버리고 한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합시다.

##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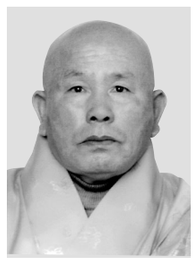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스님**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된다. 보살은 그렇지 않아서, 늘 만족하고자 생각하고, 가난해도 편안히 머물러 도(道)를 지켜,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안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금 새겨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 팔정도 행하는 한 해 되길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자기를 믿는 자는 남도 믿고(自信者人), 자기를 믿지 못하는 자는 남도 또한 믿지 못하고(自信不者人), 마음이 밝으면 있는 곳이 극락이고(心明之樂), 마음이 어두우면 있는 곳이 지옥이니라.(心暗之獄) 다가오는 정유년에는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 자기성찰(自己省察)과 함께 팔정도(八正道)를 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내면을 성찰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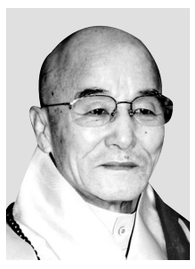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어리석은 사람은 언제나 감각적 쾌락에 물들어 삽니다. 이러한 사람은 작은 것에 집착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님은 언제 어디서나 욕망을 절제하고 유혹으로부터 자제할 줄 압니다. 그에게 분노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의 삶은 온화하고 부드럽고 여유롭습니다. 출가 재가를 막론하고 새해에는 보이는 것에 치우쳐 외면을 가꾸려하지 말고 내면을 변화시키는 성찰에 정진하십시오.

## 스스로 돌아봅시다

**(사)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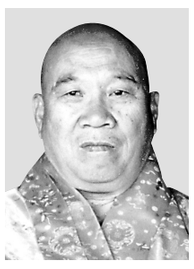


부처님 법에 따라 마음을 닦고 정진하자 사람이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런데 비방하고 칭찬하는 것은 모두 명리 때문이다.

명리 추구에서 벗어나 부처님 법에 따라 마음을 닦고 정진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불자님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반야 지혜의 태양이 뜬다

**(사)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금강의 굳고 날카로운
반야의 지혜로써
번뇌의 숲을 끊으시고
지혜의 태양으로
첩첩의 어둠을 비추시며
通方正眼으로
강산이 평화롭고
백성이 편안하여라

## 솔선수범하는 것이 참불자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우리 불자들은 스스로가 하심으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갈등을 치유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참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면 이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아 미망을 떨쳐버리고 진실된 나를 찾아가는,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청정한 마음 찾아 떠나세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처음을 알리는 마음, 처음 부처님을 향한 초발심을 항상 간직하는 마음만이 이 사바세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처방입니다. 사바세계의 괴로움은 바로 우리들의 괴로움입니다. 사바세계가 웃으면 우리들도 웃습니다. 본래 청정한 마음을 찾으면 모두 함께 웃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항상 하는 마음으로 여여한 삶을 영위해 나갑시다.

## 참된 불자로 거듭나길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정유년 새해는 몸으로 진실한 행을 실천하고, 입으로 진리의 참 뜻을 전하며, 마음으로 부처의 보리심을 일으켜 선악 시비 선후 본말의 인과 이치를 깨달아 우리의 복과 지혜를 키우는 한해가 되길 서원합니다. 물질위주의 삭막한 현실 속에서 탐진치에 물든 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청정한 삶을 살아 사회의 모범이 되는 불자가 됩시다.

## 대화·타협으로 화합된 사회를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일초 스님**



매년 밝게 떠오르는 아침 해는 변함이 없는데 우리는 각자의 생각과 분별,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 밝아도 밝음을 보지 못하고 지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조금씩 양보하고 한발씩 물러나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모든 이가 하나로 뭉쳐 화합된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원해봅니다.

## 성불의 금자탑 쌓아가자

**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정유년 새해를 맞아 우리 모두가 365일이나 되는 큰 선물을 받았으니 기쁜 마음 한량없어 날마다 좋은 날이요 가는 곳마다 곳곳이 극락이로다. 오늘은 오직 한 번뿐이며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같이 소중한 선물을 헛되게 보내지 말고 매일 매일을 보람있게 살며 성불의 금자탑을 쌓아 갑시다.

## 욕망과 아집 버리고 희망으로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스님**



정유년 새해에는 서로 베풀고 또한 하루에도 한량없이 찾아오는 망념에 사로잡혀 무시습숙(無始習熟)한 숙업의 선율은 여지없고 마음을 수시로 흔들어 놓아도 언제 어디로 갈 곳 하나 모르고 살아가는 뜬구름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정유년 새해에는 허망된 욕망과 아집을 버리고 서로 베풀면서 복덕을 쌓아 복되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 흔년이 가면 새년이 오는 법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팔십평생 만난 년이 잘했다는 년 별로없고 그저 그년이 그년일세. 흔년이 가면 새년이 오는 법 간 년 참 시끄러운 년일세. 병신년이 떨던 꼴값 지은 구업 어찌할꼬 육체는 무상하고 업보는 끝이 없나니 시비나 성패도 지나고 보면 다 허무한 것 오늘 내 행동은 순간 순간 행복과 불행을 만드나니 혼탁한 이시대에 미움과 탐욕을 버리고 시끄러운 년에 피운 촛불일랑 오는 년엔 자비광명되어 온누리를 밝혀 주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 병아리 깨고 나오듯 중생 번성

**(사)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부처님전 꿇어 앉아 천만배 기도하고 아는 것도 얻은 것도 없으니 무었을 닦고 깨달았다 하리오.

그믐날 한밤에 어리석고 몽매한 인성으로 꿈속에서 휘황을 보듯 크게 깨달음을 얻으니 정유년 암탉이 붉은 옷 곱게 차리고 많은 병아리들이 깨고 나오듯 중생은 번성하리라.

정유년 새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희망차고 행복한 새 인연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청정하고 단아한 공부자의 마음으로 올 정유년은 늘 화합되고 아름답게 살길 당부 드립니다. 세상 인연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얽히고 설켜 함께 만들어 낸 인드라망의 인연으로 우리의 삶이 깨달음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길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인내하고 인연국토에서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꿈꾸는 불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희망차고 행복한 새 인연을 만들어 가는 불자님들이 되시길 축원올립니다.

## 지혜로운 자세로 본분을

**대한불교선교종 종정 법운 스님**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자세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대자대비가 지금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해법임을 알아서 선악을 구분 짓지 말고 자비로운 생활을 합시다. 이처럼 생활해 나간다면 '자비무적'이라 어디 누가 있어 적이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 하나인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힘든 때일수록 우리불자들은 본래의 자리에서 차분하고 지혜로운 자세로 자신의 본분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나갑시다.

##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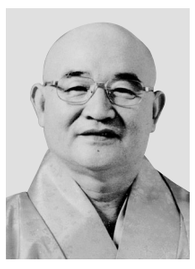
心生卽種種法生 心滅卽種種法生

마음이 생기면 갖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소멸하면 갖가지 법이 소멸한다. 세상에는 항시 새날이 있고 새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맞이하는 사람은 저마다 항시 새로운 각오와 함께 다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제어하여 한곳에 두면 무슨 일이던지 다 처리할 수 있으리라. 정유년 한 해는 마음을 집중하여 한 가지 심중 소구소원을 꼭 이루시길 합장하나이다.

## 온정 나눠 희망찬 한 해를

**(사)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혜정 스님**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혼란한 시국으로 많은 불자님들께서 어려움을 격고 있기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바른 정신이 살아있어야 어떠한 어려움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그러했듯 우리 불자님들은 욕심을 버리고 내 분수에 맞는 삶으로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해나간다면 어려움은 반듯이 극복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절, 불자님들 모두 서로 베풀어 온정을 나누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귀한 사람으로 거듭나길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悉無所着諸色相 皆無所作妄分別
能淨無畏常見佛 普賢誓願廣大心

모든 경계와 모습에 다 집착한 바가 없고, 망령된 분별도 모두 지은 바가 없으니, 두려움이 없고 깨끗하여 항상 부처를 볼 수가 있음은 보현보살의 서원한 마음이 넓고 크기 때문이니라! 정유년에는 힘 있는 큰 부자가 되고 힘 있는 귀한 사람이 되어 곳곳마다 불사하기를 발원합니다.

## 洞山의 묵조화가 피길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심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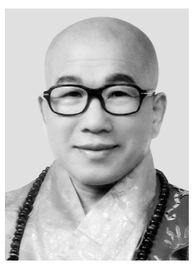


洞心不忘默照求
坐了喫茶甘露香
默落照開然時節
丁酉春風洞山花

정신적으로 힘이 들수록, 물질적으로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면서 살아야 합니다. 종도 여러분! 본래의 자성을 깨뜨리십시오. 그 순간 부처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유년 동산(洞山)의 묵조화가 활짝 피기를 기원 드리며 각 사암의 발전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탐욕의 근본을 과감히 자르라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나무는 끊어도 근본을 베지 않으면 뿌리가 있어서 다시 돌아나는 법 능히 탐하는 마음을 자르지 못하면 송아지가 어미젖을 그리워함과 같으니 끝내 어미마저 말라 죽게 되느니라.

바람도 없고 비도 오지 않는 메마른 세월에 큰 나무와 작은 나무들의 권력 다툼은 민초들에게 고통스러움만 줄 뿐이로다.

## 화합으로 상생의 길을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성철 스님**



세상에는 각기 다른 주장과 이념의 차이가 괭배해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또 다른 불행을 부릅니다. 이제 반목(反目)과 시기(猜忌)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아집(我執)을 화합(和合)으로 만들어 가야할 때입니다. 모두가 이러한 원력을 세워 나간다면 아픔은 기쁨으로 승화될 것이며, 그늘진 곳에도 광명이 깃들고 차별 없는 사회,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상생(相生)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 밖에서 법을 찾지 말라

**(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눈앞에 움직이는 것이 바로 조사(祖師)와 부처와 다르지 않거늘 그대들은 믿지 않고 밖에서 찾음이로다. 착각하지 말라. 밖에서 법을 찾을 수 없고 안에서도 또한 얻지 못할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이 부처를 구하고 법을 구하며 해탈을 구하는 것이 다 중생심이다. 만약 법다운 견해를 터득하려면 남에게 끄달리지 말라. 안과 밖을 행해서 찾게 되면 해탈을 얻어서 사물에 구애되지 않고 생사에서 벗어나 자재할 것이다.

## 모두 함께하면 곧 극락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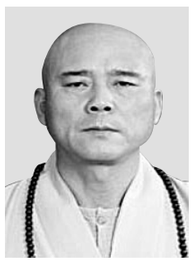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정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닭의 기운으로 힘차게 시작합시다. 새로이 솟아오르는 태양을 보며 모든 이들의 갈등과 대립, 경쟁심이 사라지기를 기원합시다. 깨닫고 보면 날마다 좋은 날이지만 권력과 부귀와 입신출세만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하루하루가 힘들고 결국 그 끝은 암울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이기적 분별심을 벗어나 나와 이웃과 함께 한다면 모두 극락세계일 것입니다.

## 한 걸음 나아가는 마음으로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2016년은 우리 국민과 불자들에게 새로운 혁신의 물결 속에서 혼란과 불안이 거듭된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촛불은 연등처럼 우리 안의 공덕장엄을 환희 비춰,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우리 모두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 백척간두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수행자의 모습으로 이 정유년을 시작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합장하며 당부 드립니다.

## 새해 광명에 恨 녹이자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눈부신 태양이 우주 만물을 비추니 추한 것도 더러운 것도 사라지고 미움도 원망도 모두 사라집니다. 나도 너요, 너 또한 나이니 너와 나의 분별이 없는 한 몸의 경계가 평화입니다. 밝아오는 새해 태양의 광명은 나와 너의 것이니 다함께 가슴속 한을 녹여서 분노를 삭이고 원망을 지워내 한량없는 기쁨으로 풍악을 울리며 다함께 춤을 춥시다. 다함께 성불합시다.

## 국태민안, 가정화목의 해로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원 스님**



부처님 재세 시 아싸지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훌륭한 신행으로 그 당시엔 아직 부처님제자가 아닌 이교도의 수장이었던 사리불 존자와 친구인 목건련 존자, 수백 명의 이교도의 수행자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서 불교의 교세가 획기적으로 확장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에 우리 모든 불자들은 모범적인 신행으로,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 1% 자비로 따뜻한 마음내자

**(사)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절문이근사(切問而近思)하면 인재기중의(仁在基中矣)니라. 묻기를 간절히 하고, 생각을 가까이 하면 수행자는 어진 것이, 그 가운데 있느니라. 불자는 세상을 밝히는 등불같이 소금같이 역할을 해야합니다. 소금 1%가 바다를 썩지않게 하듯이 여래의 정신을 가진 1%의 자비로 따뜻한 마음내어 세상을 밝히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른다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靜水流深
深水無聲

고요한 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 않듯 고요함 속에 참 진리가 있는 것이다. 침묵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린 후에 새싹이 돋아나기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다. 닭의 울음소리는 새벽을 알리는 울음 소리며, 새해에 일체 중생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인과법 바르게 실천하는 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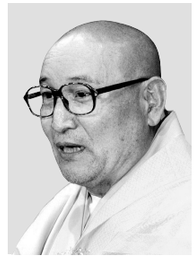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파 스님**



내가 지은 것은 지은대로 받는 불교의 인과법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부처님의 참뜻을 항상 생각하며 슬기롭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와 신념의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심청정이 곧 불법

**대한불교본조계종 종정 회암 스님**



諸行無常 是生滅法
生滅滅已 寂滅爲樂
諸惡莫作 衆善奉行
自淨其意 是諸佛敎

정함 없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이니 집착함을 놓으면 곧 고요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니 모든 나쁜 짓을 짓지 말고 맑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로다.

## 생각 끊어지면 한 세상 쉬리라

**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진정으로 자기를 돌아보세요. 앞으로 법신을 찾고자 하면 법상을 떠나서 마음 씻으면 노력하고 살피며 노닐지 마세요. 뒤 생각 끊어지면 한 세상 쉬리라. 이 게송에 의지하여 수행하면 돈오 할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나쁜 것을 버리고, 좋은 것은 참고 하면 일체 모든 것을 새로운 각오로써 대처하고 단결하여 나아가면 오는 앞날에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 만법 속에서 상생의 화합으로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하늘에서는 진리의 우레가 일어나고 온 우주에 가득한 장애(障碍)가 사라집니다. 곳곳에서 둥글게 화합하니 통합의 길이 열리고 우리 모두 차별 없는 일미를 이루고 번뇌(煩惱)속에서 범부는 부처를 만나고 고난 속에서 비로소 마음의 안식을 찾게 됩니다. 누구도 진리를 벗어 날 수 없고 만법 속에서 상생의 화합으로 불국정토로 만들어 갑시다.

## 자성중생서원도 이루자

**대한불교광명종 종정 불인 스님**



정유년 새해 부처님의 가피가 가내에 두루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해해탈 이란 완성된 인격 구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계정혜로 풀어서 작각 각행 각타 중생무변서원도로 원력을 세워 자성중생서원도에 이르기까지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며 지상극락 이룩합시다.

## 불교의 깨달음이 사회적 해탈

**종교세계신문사 발행인 윤기순**



물질 지상주의, 배금주의로 사회가 변화되어 인간은 본성을 상실하고 허공중에 빙빙도는 팔랑개비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불교는 구원이 아니라 해탈입니다. 인간의 번뇌와 망상으로 구속되어있는 것을 풀어서 본래 자리인 불(佛)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부터 이러한 물질 지상주의와 배금사상을 버리고 번뇌와 망상을 끊고 본래의 참다운 모습으로 회귀하여 해탈의 길을 성취합시다.

## 본분 잊지 말고 정진하자

**(재)진각미란다 이사장 이용도**



각종 병폐로 우리 사회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 우리불교는 호국불교의 정신을 이어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병든 사회에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아플 때 나도 아파하는 대자대비의 마음만이 오로지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차분하고 지혜롭게 불제로서 본분을 잊지 말고 정진합시다.